

## 인생의 무상함, 시간의 의미를 묻다...'무위예찬'展

13, May, 16 | 박상현 기자

page 1 of 2

### 국제갤러리서 우순옥 개인전



'시간의 그림'. [국제갤러리 제공]

"빠르게 흘러가고 경쟁이 극심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잘 살고 있나요.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행복일까요."

중견 작가 우순옥(58)은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13일 시작된 자신의 개인전 제목인 '무위예찬'에 대해 "결과 중심주의가 일상을 압도하는 시대에 개인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삶을 바라보길 바랐다"고 말했다.

우순옥에게 무위(無爲)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이룬다'는 역설적 의미다. 그는 5년 만에 여는 이번 개인전 "빠르게 흘러가고 경쟁이 극심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잘 살고 있나요.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행복일까요."

중견 작가 우순옥(58)은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13일 시작된 자신의 개인전 제목인 '무위예찬'에 대해 "결과 중심주의가 일상을 압도하는 시대에 개인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삶을 바라보길 바랐다"고 말했다.



파라드로잉. [국제갤러리 제공]

그러면서 "이 그림이 젊은 시절에는 정말 소중한 애절했지만, 막상 곁에 없어도 잘 살게 되더라"며 "이번 전시를 위해 독일에 가서 20년 만에 그림을 꺼내 살펴보니 얼굴의 주름처럼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고 덧붙였다.

우순옥은 꾸깃꾸깃해진 작품의 이름을 '시간의 그림'으로 바꾸고 그대로 전시장에 걸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처럼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회화, 영상, 드로잉, 설치 작품 12점이 나왔다.

'시간의 그림'과 함께 눈길을 끄는 작품은 작은 모니터를 통해 상영되는 '무위의 풍경'이다.

작가는 독일 쾰른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가면서 촬영한 약 10분짜리 영상을 늘려서 10시간이 넘는 분량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관람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마치 사진처럼 감상하게 된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찰나와 순간을 보여준다"면서 "결과보다 과정 속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